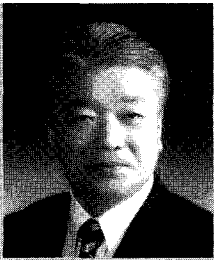


# 생분해성 수지 제품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 환경보호 선두주자 역할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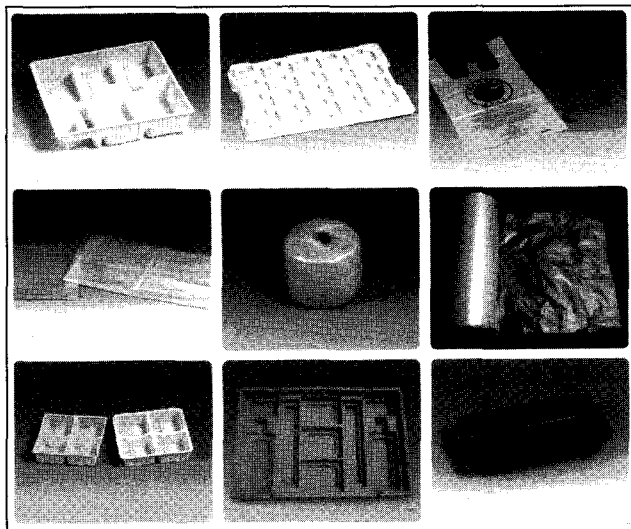


최 응 관  
(주)이레푸른나라 대표이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동등한 물성을 유지하나, 사용후 폐기 또는 자연상태에 버려졌을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및 조류)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수지를 말한다.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은 많은 업체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지 1년도 채 안된 기업이 포장재 용기부분 전문제조 회사로 생분해성 대체에너지 플라스틱을 제조하며 국내 및 수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주)이레푸른나라의 친환경 무공해 무궁화제품



▲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이레푸른나라 공장

(주)이레푸른나라(대표이사 최용관)는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제품인 무궁화(브랜드명)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이다.

또한 식품용기, 산업 완충재, 쇼핑봉투, 쓰레기봉투, 롤봉투의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친환경인 생분해 수지로 가공하여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경표준 대표기업이다.

2004년 7월 설립 이래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는 이레푸른나라는 LG패션, 인터컨티넨탈호텔, 교동한과, 코스트코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LG패션에는 비닐봉투를, 인터컨티넨탈호텔에는 도시락용기를, 교동한과에는 제품포장지를 각각 납품한다. 코스트코에는 생분해성 트레이용기를 공급, 대만 코스트코 측과의 수출계약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천연곡물재질을 원료로 추출한 PLA(Poly Lactic Acid) 생분해성소재를 처음으로

용기로 출시, 관련업체들에게 원단판매 및 주문제작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일환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합작으로 중국 대지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레푸른나라는 8개월 후 자체 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흡 용기를 공급하게 됐다.

이처럼 이레푸른나라는 환경산업에 적극 참여하며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선두기업으로 산업전반의 친환경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레푸른나라는 회사 설립

## IRE

1년이 채 안됐지만 철저한 준비기간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문제 뿐 아니라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최용관 대표이사는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의 것”이라며 “환경기업인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직한 기업, 함께하는 기업, 세계의 기업을 표방하는 최 사장은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직을 제일 우선으로 직원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8여명의 직원과 함께 생분해성 수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 사장.

그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미개척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세금감금의 혜택이나 국민들의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많으나 이를 활성화하고 공급하는 업체는 몇 안 되는 것이 국내 실정이다.

생분해성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레푸른나라는 생분해성 도시락 반찬 용기 등을 가격적인 면에서 펄프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 공급, 관련업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월별 매출 30% 이상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 사장은 생분해성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분해성 수치 4개 제품을 한·호주 환경마크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호주 환경마크를 획득하는 등 타회사와의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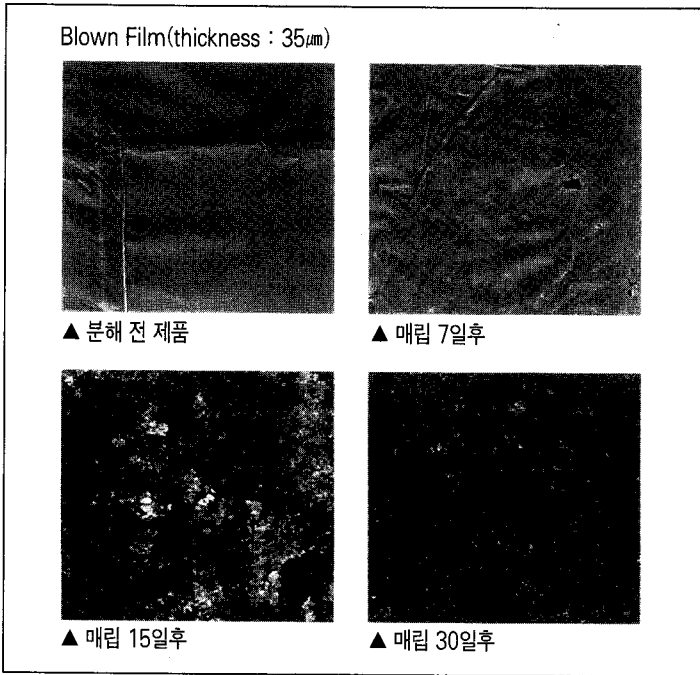
화를 강화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4월 남북 합영기업인 평양대마방직을 가동하기 위해 방직 기계 36대를 실은 20대의 트럭이 경의선 남북경영도로를 통해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다.

대마를 가공하고 남은 대마속대를 이용하여 1회용 용기(컵, 도시락, 트레이, 식품용, 완충재용, 비닐봉투, 농업용 비닐) 등을 만들어 대마의 100% 활용가치를 통하여 남북의 생산성 1차 생산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다.

이는 평양에 공장을 세워 북측 노동자 고용 창출 및 기술 지원 등으로 생분해성 일회용 용기와 비닐 등,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만들어 남·북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실한 크리스찬인이기도 한 최 사장은 이번 사업이 선



▲ 무궁화 수지 토양 매립변화 모습

교적인 측면도 포함돼 있다.

최 사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북한에 무료 급식소, 미용실, 대학 병원 등을 세워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는 선두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무감으로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분

야가 워낙 영세하고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 사장은 “국민들이 환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구매가 이뤄진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격도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레푸른나라의 고객인 LG 패션은 일주일에 한번

씩 등산객들에게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 봉지를 나눠주며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이레푸른나라의 생분해성 롤백의 경우 몇몇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위해 계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많은 업체들이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이레푸른나라측과 거래하고 있으며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최 사장은 “환경을 위한 몇몇한 사업으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선두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익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사회환원을 목표로 온직원이 모범적으로 맡은바 충실히 임하고 있는 이레푸른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레푸른나라의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ko]

이한얼 기자